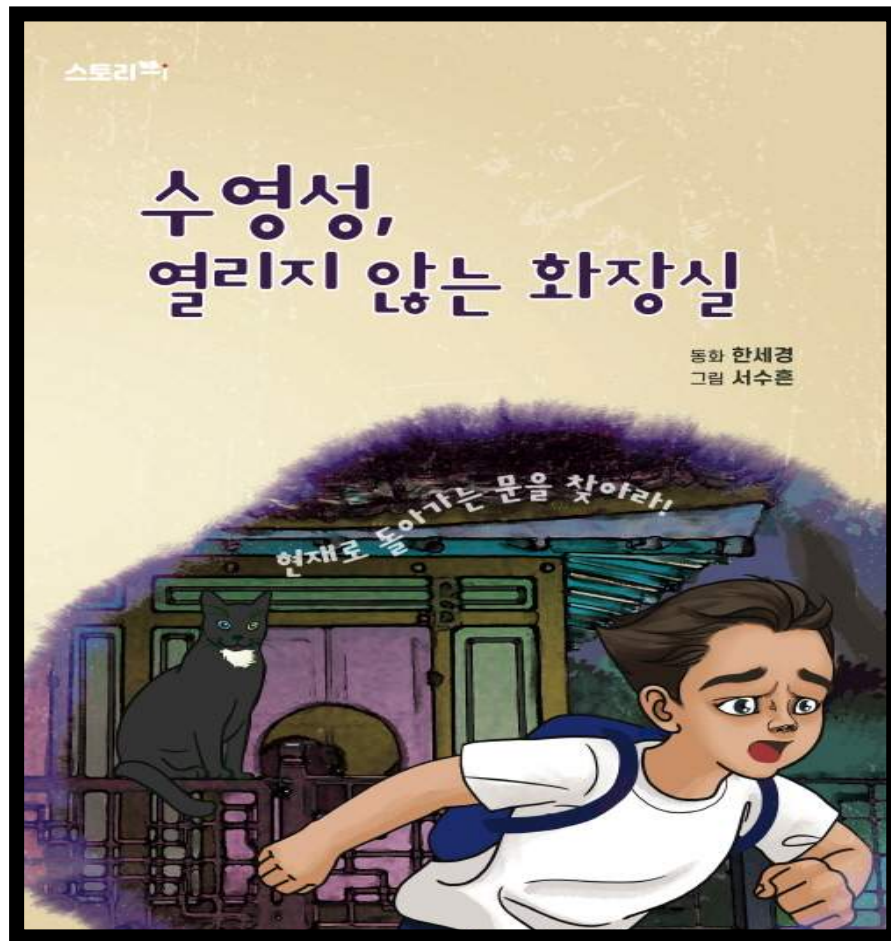


한 학기 한 권 읽기

## 수영성, 열리지 않는 화장실



초등학교	학년	반
이름		

읽기 전 활동	<div>계획해 볼까요?</div>	만족도
		☆☆☆☆☆

순서	읽을 날짜	읽은 날짜	기억에 남는 낱말
갑사샘			
화첩			
수영성, 열리지 않는 화장실			
어쩌다 과거			
낮선 아저씨를 따라			
왜놈 앞잡이			
피의 맹세			
중립어른			
검둥이를 살려주세요			
염탐			
등에 맨 붓짐			
25명의 의병			
고당에 갇힌 수찬이			
되찾은 수영성			
용맹한 박견			
다시 돌아온 ‘달밤에 수영성 난장’			



읽기 전 활동	내용을 이어 보요!	만족도
		☆☆☆☆☆

※ ‘수영성, 열리지 않는 화장실’에 나오는 그림입니다. 다음 그림을 보고 순서를 정한 다음, 내가 상상한 내용을 한 문장씩 적어봅시다.



1



1

2

3

4

5

6



읽기 전 활동	미리 알기	만족도 ☆☆☆☆☆
------------	-------	--------------

※ 임진왜란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나요? ‘수영성, 열리지 않는 화장실’을 읽기 전에, 이야기의 시대적 배경이 되는 ‘임진왜란’을 먼저 살펴봅시다.

## 1. 빠르게 밀려오는 왜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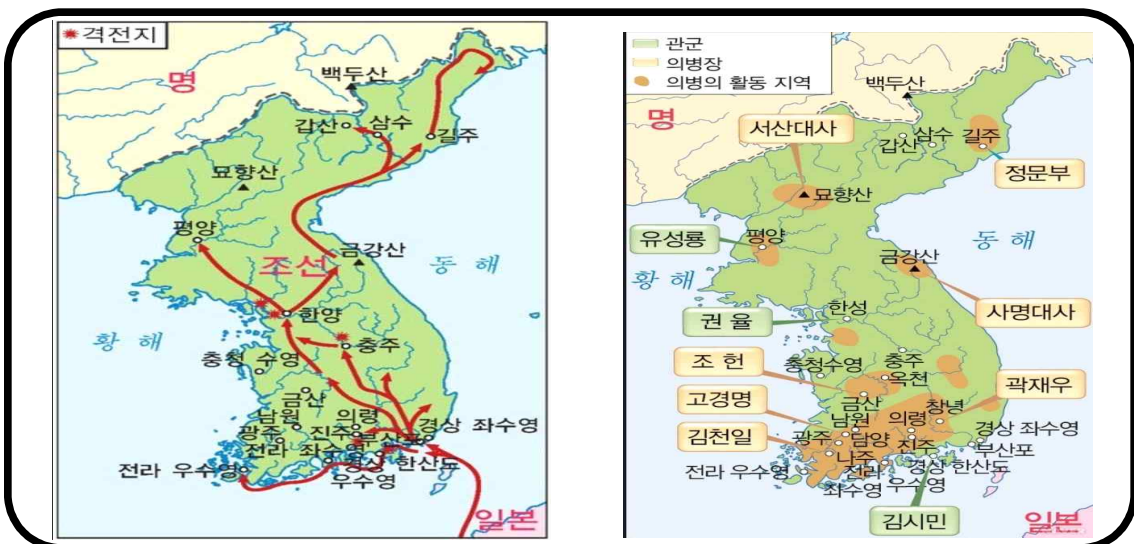
지금으로부터 400여 년 전, 1592년 4월, 왜군은 명나라로 가는 길을 내달라는 구실로 부산 앞바다에 나타났어요. 왜군은 부산진성과 동래성을 순식간에 무너뜨리고, 한양을 향해 쳐들어왔어요.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조선 군대는 여기저기서 패하고 말았어요.

선조는 신립 장군에게 희망을 걸었어요. 신립은 탄금대에서 배수진을 치고 결사적으로 싸웠지만 신무기인 조총으로 무장한 왜군을 막아내는 것은 어려웠어요. 결국 신립은 강물에 몸을 던졌어요. 왜군은 20여일 만에 한양을 점령했고, 선조는 평양성을 거쳐 의주까지 피난을 가서 명나라에 구원병을 요청했어요.

## 2. 조선의 반격

전쟁 초기에는 관군의 패배로 나라 전체가 큰 어려움에 처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일본군의 손에 죽었고, 온 나라가 일본군에 짓밟혔지요. 이와 같은 위기 속에서 나라를 지켜낸 분이 이순신 장군을 비롯한 우리 수군이었어요.

한편, 바다에서 승리가 계속되는 동안 육지에서는 의병이 일어났어요. 의병이란 나라를 구하기 위해 스스로 일어난 의로운 병사들을 말해요. 의병은 마을의 지리에 밝다는 이점을 이용해 매복·기습·유격(게릴라)전을 벌이며 용감히 왜군을 막아냈어요. 주로 전직 관료와 유생, 승려가 의병장이었고, 농민이 중심이 되었어요.





### 3. 왜란의 영향

전쟁은 명나라 군대가 조선에 도착하면서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명군과 일본군이 두 차례의 전투를 치른 뒤 1593년 4월, 휴전 회담을 시작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어서, 백성들은 왜군과 치열한 전쟁을 치르면서도 한편으로는 명나라 군대를 먹여 살리느라 고통은 말할 수 없이 컸어요.

1597년 일본이 휴전 회담을 깨고 다시 쳐들어 왔는데, 이를 정유재란이라고 해요. 하지만 조선의 육군과 수군은 왜군을 모두 물리치고 전쟁을 끝냈어요.

7년에 걸친 두 차례의 왜란으로 온 나라는 폐허가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일본으로 잡혀갔지요.

#### \*알고 있나요?

#### <코 무덤, 귀 무덤>

일본 교토에 가면 높이 약 9m에 이르는 귀 무덤이 있어요. 이름은 귀 무덤이지만 실제로는 코 무덤이기도 해요.

전쟁이 계속될수록 죄 없는 백성들의 피해는 날로 심해졌어요.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전쟁이 별다른 성과 없이 계속 이어지자 부하 장수들을 독려하기 위해 조선인의 코와 귀를 베어 전리품으로 바치라고 명령해요.

영수증에 몇 명을 죽였는지 적어 주면 그 공을 인정해 주었지요. 수량을 적은 확인서까지 보내니 일본의 장수들은 서로 더 많은 공을 세우기 위해 조선의 백성들을 죽이기 시작했어요.

오사카 항에 도착한 코와 귀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명에 따라 교토로 실려가 땅에 묻혔어요. 그것이 오늘날 귀 무덤이라 불리는 이충입니다.

귀 무덤인 이충은 일본 전역에 흩어져 있어요. 그중 가장 규모가 큰 것이 바로 교토에 있는 이충이지요. 무려 조선 백성 12만 6천여 명의 코와 귀가 잘려 무덤에 매장된 거예요. 죽은 사람뿐 아니라 산 사람의 코를 베어가는 일까지 발생했지요.

혹시 어른들이 아이들이 위험한 행동을 하려 할 때 “에비!” 하고 겁주는 소리를 들어 본 적이 있나요?

이때 ‘에비’는 귀와 코를 뜻하는 한자어인 이비(耳鼻)에서 나온 말로, 오늘날까지도 어린아이에게 주의 줄 때 사용되고 있어요.



교토에 있는 높이 9m 귀무덤



읽기 중 활동	마음에 드는 문장	만족도
		☆☆☆☆☆

※ ‘수영성, 열리지 않는 화장실’의 각 장을 읽고,  
가장 기억에 남는 문장을 기록해 봅시다.

갑사샘	남의 나라 유적지를 돌아보기 전에 내가 살고 있는, 우리 고장의 역사부터 제대로 알아야 하지 않겠나? <10쪽>
화첩	
수영성, 열리지 않는 화장실	
어쩌다 과거	
낮선 아저씨를 따라	
왜놈 앞잡이	
피의 맹세	
중령어른	



※ ‘수영성, 열리지 않는 화장실’의 각 장을 읽고,  
가장 기억에 남는 문장을 기록해 봅시다.

검둥이를 살려주세요

염탐

등에 맨 붓짐

25명의 의병

고당에 갇힌 수찬이

되찾은 수영성

용맹한 박견

다시 돌아온 ‘달밤에  
수영성 난장’

읽기 중 활동	다양한 방법 생각하기	만족도
		☆☆☆☆☆

※ ‘달밤에 수영성 난장’ 행사에 참여하던 영민이는 화장실 문이 열리지 않아 몹시 당황합니다. 휴대폰도 없는 상황에서 여러분이라면 어떤 방법으로 화장실을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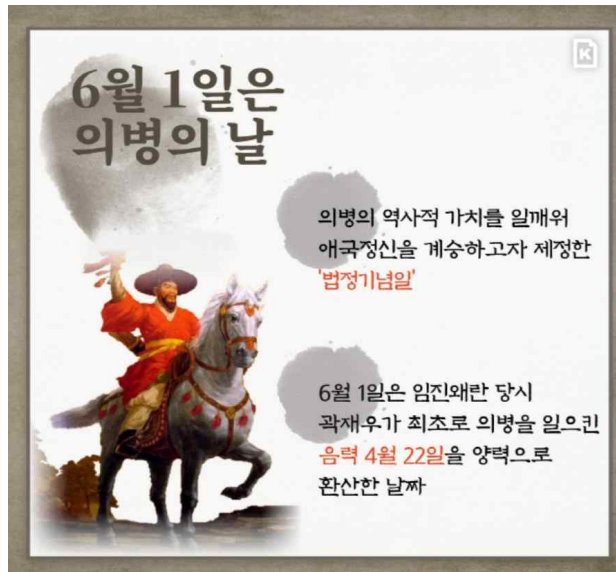


---

읽기 중 활동	내가 의병이라면	만족도
		☆☆☆☆☆

※ 왜군과의 전투에서 일반 백성들은 군사를 도와 함께 싸웠어요. 뜨거운 물을 끓여 성벽을 타고 올라오는 왜군들에게 쏟기도 하고 돌을 모아 던지기도 하며 항전했지요.  
영민이도 화약에 물을 뿌려 조총을 쏘지 못하게 하고, 상길아저씨가 지름길을 표시해 놓은 지도를 숨겨 나오기도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임진왜란 당시의 백성이었다면 수영성을 지키기 위해 어떤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

---

---

---

---

---

---

---

읽기 중 활동	박견과 고양이	만족도
		☆☆☆☆☆

※ 조선시대의 개를 ‘박견’이라고 불렀다고 해요. ‘수영성, 열리지 않는 화장실’에는 박견 검둥이가 등장합니다. 이야기 속에는 수영사적공원 ‘25의용단’에서 본 검정색 고양이도 나오지요. 이 고양이는 작가가 수영사적공원 25의용단 앞에서 직접 본 고양이라고 하는데 마치 25의용단을 지키고 있는 것처럼 오가는 사람들을 감시하고 있었다고 해요.

이 동화에서 박견 검둥이와 검은 고양이는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자신의 생각을 있는 그대로 적어 봅시다.

#### 조선시대 개



#### 숙종의 고양이 사랑

조선 19대 왕 숙종(1661~1720)은 어느 날 궁궐 후원을 산책하다가 굶주려 죽어가는 고양이 한 마리를 보게 됐어요. 숙종은 금색 털이 난 그 고양이에게 금덕(金德)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데려와 길렀어요. 금덕이는 새끼를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죽었는데, 숙종은 장례식을 치러주고 새끼를 금손(金孫)이라 부르면서 정을 듬뿍 주었어요. 식사를 할 때면 곁에 앉혀두고 직접 먹이를 먹였고, 나랏일을 볼 때도 늘 곁에 두고 쓰다듬을 정도였지요. 심지어는 같은 1720년 숙종이 세상을 떠나자 금손이는 먹이를 먹지 않고 궁궐에서 울기만 하다가 끝내 자기를 사랑해주었던 주인의 뒤를 따라 죽었다고 전해져요. 금손이의 시신은 숙종의 무덤인 명릉 곁에 묻혔어요. 고양이인데도 개처럼 충직했던 것이죠.

숙종이 '고양이 집사'였다는 것은 같은 시대 문인들이 기록한 글을 통해 남았어요. 실학자 이익의 '성호사설', 김시민의 '동포집', 이하곤의 '두타초' 등이죠. 김시민은 '이 고양이(금손)는 죽음으로 주인에게 보답했다'라고 썼어요.



출처 : 뉴스 속의 한국사(2019.5.14), 그림 안병현

검둥이	고양이

읽기 중 활동	봉수대	만족도
		☆☆☆☆☆

## 원거리 통신 수단이었던 봉수대

봉수는 적의 침입을 알리는 신호체계였어요. 고려 말 잦은 왜구의 침입으로 강화된 제도입니다. 신호가 전달하는 내용은 봉수대의 굴뚝에서 올리는 연기나 불꽃의 수에 따라 달랐습니다. 이렇게 연기나 불빛을 이용하여 만든 신호는 인근의 봉수대에 차례대로 전달되어 한양(현재의 서울)까지 전달하였습니다. 봉수대는 봉수 신호를 잘 받고 전달해야 하기 때문에 높은 산꼭대기에 세웠습니다. 평상시 연기나 불빛으로 알아볼 수 있는 거리를 두고 봉수대를 세웠는데, 이렇게 설치된 봉수대는 전국에 600개 이상 되었습니다.



\* 만약 봉수대 햇불을 8개까지 피워 올릴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신호 내용을 담고 싶은가요?

갯수	내용
6개	
7개	
8개	



읽기 후 활동	다시 생각해보기	만족도
		☆☆☆☆☆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 통신사 김성일과 황윤길은 당시 일본의 사정을 파악하기 위해 일본으로 건너가 토요토미 히데요시를 만나고 왔어요. 김성일과 황윤길은 귀국 후에 각기 다른 의견을 내었답니다.

**\*황윤길 :** 일본이 많은 병선을 준비하고 있어서 반드시 침략할 것입니다.  
토요토미는 얼굴에 빛이 나고 겁이 없어 경계해야할 대상입니다.

**\*김성일 :** 일본이 침략할 꾀새는 전혀 없었으며, 토요토미의 사람됨도 쥐와  
같이 생겨서 전혀 두려워 할 것이 못 됩니다.

만약 당시의 임금이었던 선조가 황윤길의 말을 믿었다면 현재까지 우리의 역사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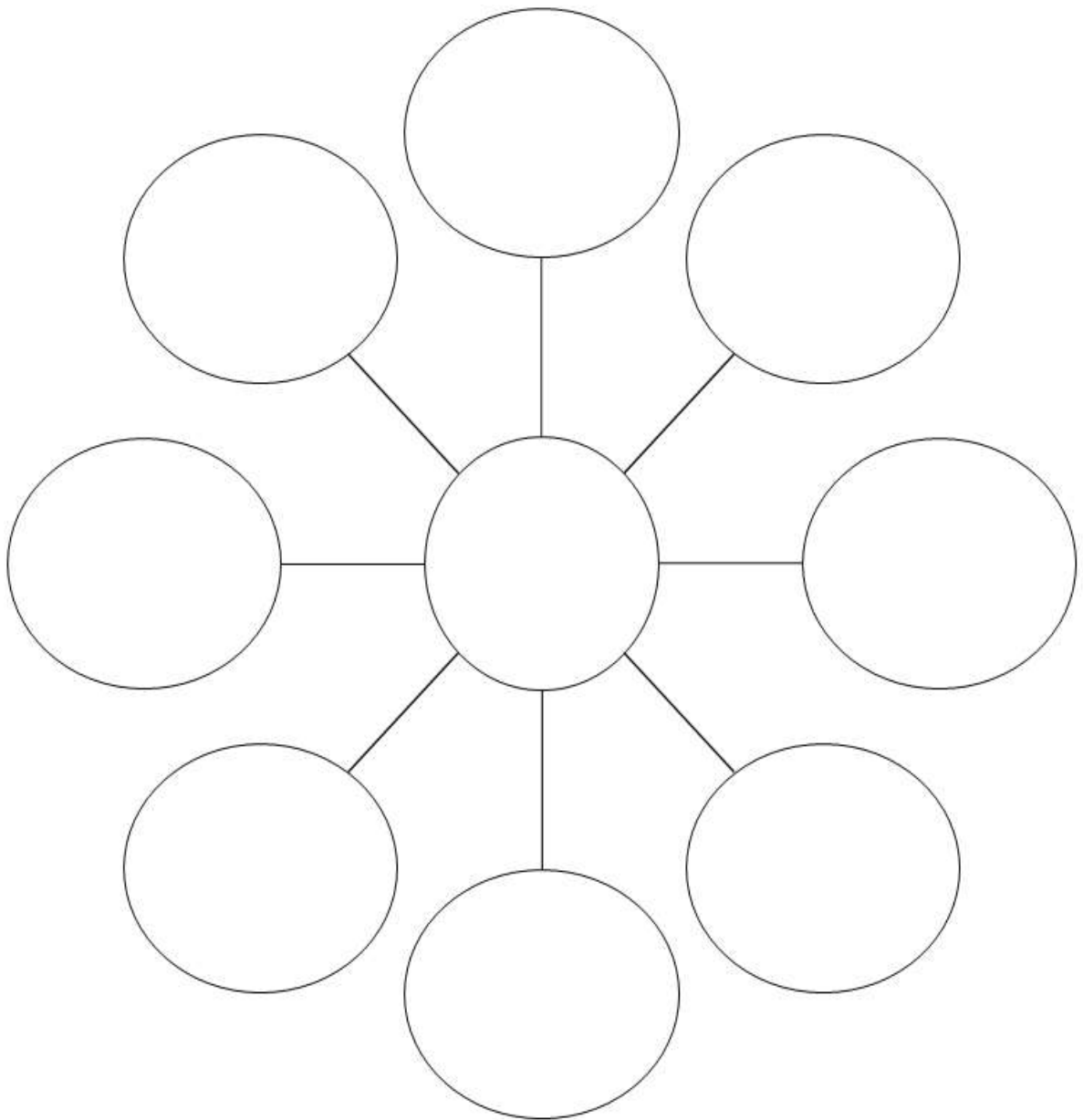
.....

.....



읽기 후 활동	생각의 변화	만족도
		☆☆☆☆☆

※ ‘수영성, 열리지 않는 화장실!’을 읽고 떠오른 생각이나 느낌을 자유롭게 기록해 봅시다. 역사를 바라보던 시선에 조금이라도 변화가 생겼다면 이 글을 쓴 작가는 아주 행복할 것입니다.



읽기 후 활동	정리 퀴즈!	만족도
		☆☆☆☆☆

※ ‘수영성, 열리지 않는 화장실’의 전체 내용을 떠올리며 다음 문제를 풀어봅시다.

1. 역사를 싫어하는 영민이가 과거로 돌아갈 거라는 것을 암시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 ☐ ① 영민이 엄마                      ☐ ② 영민이 아빠  
☐ ③ 영민이 담임선생님              ☐ ④ 타로카드 누나

2. 영민이가 25의용인을 도와 한 일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 ☐ ① 화약상자에 물을 뿌려 놓았다.  
☐ ② 상길아저씨가 표시한 지도를 숨겼다.  
☐ ③ 결전의 날, 막동아저씨를 구해주었다.  
☐ ④ 왜군이 가는 길에 놓인 표지판을 다른 곳으로 돌려놓았다.

3. 영민이는 화첩에서 실 팔찌를 낀 할머니와 영민이를 닮은 할아버지를 보았습니다. 영민이가 과거로 돌아가 만난 사람들의 관계를 정리해 봅시다.

과거	현재
연이	
수찬이	
막동아저씨	

4. 상길아저씨가 왜군에게 주려고 검둥이를 데려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에도 ‘개’를 식용으로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닭, 소, 돼지’ 등의 동물 고기도 먹는데 개고기를 먹지 말란 법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무엇이 옳다 그르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개고기를 음식으로 먹는 것에 대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요? 솔직하게 적어봅시다.